

# 인스타툰 <길냥이를 구해라!>

작. 이수민

## 로그라인

한글이 어렵기만 한 내성적인 아이 ‘아라’는, 어느 날 말 대신 울음소리로 의사를 전하는 길고양이 ‘미미’를 만나고, 미미의 소리를 ‘받아쓰기’하며 처음으로 글자와 세상을 연결하는 감각을 깨닫는다.

## 키워드

#가족 #추리 #동화 #판타지 #한글교육 #도시공존 #생명존중

## 기획의도

힘없는 동물도 이제는 쓸 수 있다! 힘없는 사람들의 짙은 목소리가 되었던 한글, 어떤 음성도 기록할 수 있는 한글은 고양이의 언어도 기록할 수 있다. 고양이가 한글을 배워 생존하는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힘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 작품소개

<길고양이를 구해라>는 한글이 어렵기만 한 아이 ‘아라’와 말 대신 울음소리로 소통하는 길고양이 ‘미미’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소리를 기록하며 ‘받아쓰기’를 시작하는 이야기. 위험에 빠진 힘없는 동물들과 도시 속 아이가 한글을 통해 연결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통해, ‘말할 수 없는 존재가 한글로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 배경

세종시 내 고운초등학교 / 고운 중학교 / 금강 보행교 / 도서관 / 중앙공원  
신축건물과 하늘이 잘 보이는 구조의 단지

## 등장인물

---

### 아라

초등학교 1학년.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지만, 내면에는 섬세한 감수성과 관찰력이 살아 숨 쉰다.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말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한글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국어 시간에 늘 위축되지만, 길고양이 미미와의 만남을 통해 말소리와 글자의 연결 고리를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감각을 얻게 된다. “뭔가 규칙이 있는데...?”

### 유현

아라의 중학생 오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아라의 말들을 ‘어린애의 상상’이라 여기며 무시한다. 하지만 미미가 직접 자음을 굽어 표현하는 순간, 호기심이 폭발한다. 학업에 치여 감정 표현에 서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동생을 향한 걱정과 책임감은 있다. “제발요. 고양이들이 이 밥을 먹은 것 같아요!”

### 미미

아라가 자주 마주치는 검은 길고양이. 사람을 경계하지만, 아라와는 특별한 신뢰를 갖고 있는 존재. 말은 하지 않지만, 울음소리를 통해 일종의 '언어'를 구사하며 아라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순간 그것을 인지한다. 자신의 무리가 계속해서 도시에서 죽어 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간과의 소통을 시도하려 하며, 아라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실험한다. “마야 꾸우!”

### 캣맘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수상한 캣맘. “도시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 길고양이 친구들

검은 고양이 무리와 노란 고양이 무리의 사이는 좋지 않지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다.

### 동물병원 수의사

### 국어 선생님

### 경찰관

### 뉴스 앵커

## 1화

고운초등학교 교실. 1학년 ‘아라’는 국어 시간이 가장 힘들다. 평소 한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말 받아쓰기’ 숙제를 받는다. 누군가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한글로 받아적는 숙제이다. 아라는 집으로 향해 숙제를 해보려 하지만, 부모님은 모두 직장에 중학생 오빠 유현은 학원에 있다. 아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 다시 학교 근처로 향하고 그곳에서 평소 친근하게 지내는 길고양이 ‘미미’를 만난다.

“네 말을 받아적어 볼까?”

## 2화

미미는 반갑게 아라에게 몸을 비비고, 아라는 미미의 울음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한다. 아라는 울음소리를 적다 보니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아? 뭔가 규칙이 있는데...?’ 미미는 호기심에 반복되는 문장을 적은 대로 말해본다. 미미는 놀라고, 아라가 계속 문장을 반복하자 사라진다. 아라는 실망하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난다.

다음날, 국어 시간. 아라는 고양이의 말을 적은 것을 발표하는데...

“저는 고양이 미미의 말소리를 적어보았는데요!”

## 3화

국어 시간, 아이들은 아라의 발표에 비웃는 반응을 보인다. 국어 선생님도 당황하며, 부모님이나 친구의 말을 다시 적어 오라고 안내한다. 아라는 부끄러움에 속상해한다. 아라는 하굣길에 다시 미미를 만나고 미미는 아라에게 죽은 쥐 한 마리를 준다. 아라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미미는 쥐를 치워준다. ‘꾸우’ 미미는 다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한다. 아라는 다시 소통할 수 있다는 마음에 울음소리를 발음대로 받아적는다. 아라는 고양이들은 ㄱ, ㅁ, ㅇ을 많이 쓴다며 흠에 나뭇가지로 한글을 적어 보여준다. 미미는 자음을 따라 그려보고, 아라는 신기해하며 자신이 한글을 더 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떠난다.

“세종대왕님은 누구라도 글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한글을 만드신 거래!”

밤, 미미는 어딘가로 향한다. 그곳에 검은 길고양이들이 모여있다.

## 4화

한 고양이가 죽어있다.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이번이 5번째라는 이야기를 한다. 슬퍼하는 고양이들 사이에서 미미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초등학교 교실. 국어 시간에 아라는 계속 질문을 한다. 국어 선생님은 적극적인 아라의 태도에 칭찬을 해주고, 아라는 신나서 고양이에게 한글을 알려준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선생님과 아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아라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말라고 한다. 아라는 오빠 유현의 학원을 찾아가는다. 아라는 자신이 적은 노트를 보이며 미미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한다. 유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학원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미미가 아라를 찾아오고, 미미는 유현 앞에서 발톱으로 ㄱ, ㅁ, ㅇ을 그린다. 유현은 너무 놀라 아라의 노트를 빼앗는다.

그날 밤, 아라의 집. 부모님들은 요즘 중앙공원에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다는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벌써 며칠 째야. 누군가가 사체를 일부러 전시하는 것 같아.”

## 5화

다음 날, 유현은 아라와 미미를 찾아간다. 유현은 ‘마아’를 반복하고, 미미는 다시 사라진다. 아라는 그 말을 하면 미미가 사라진다고 슬퍼하고, 유현은 기다려보자고 이야기 한다. 시간이 지나자 미미는 버려진 생선을 가져온다. 유현은 주머니에서 츄르를 꺼내며 ‘마아’를 말하고 이것이 밥을 의미한 다는 것을 알게된다. 아라는 기뻐하며 한글로 ‘마아’를 땅에 적어본다. 미미는 마아를 적어보며 연습 한다. 유현은 ‘꾸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본다. 미미와 유현이 아무리 설명해도 뜻을 알 수 없다. 아라는 꾸우도 적어주고 미미는 두 단어를 적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밤, 길고양이들이 모여 있다. 이번에는 노란 고양이들이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다.

## 6화

미미가 등장 하자, 모두 검은 고양이가 왜 여기까지 왔냐며 경계한다. 미미는 용기를 내어 방법을 제안한다. 노란 고양이들은 사체를 길 중앙으로 옮긴다. 미미는 죽은 친구 앞에 ‘마아 꾸우’를 발톱으로 긁어 둔다.

다음 날, 미미는 아침부터 아라를 기다렸다가 죽은 친구 앞에 데려간다. 아라는 지각이라며 거부하지만, 죽은 친구 앞에 적인 마아 꾸우를 발견한다. ‘밥이...꾸우.... 꾸우의 의미를 알면 좋을 텐데.’ 아라는 이 사실을 유현에게 전한다.

그날 밤, 고양이들의 소식은 뉴스에 보도 된다. 한글이 앞에 적혀있다는 점도 보도가 된다. 일명 ‘캣 맘’으로 불리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여성이 인터뷰를 한다. 유현은 캣 맘의 인터뷰에 수상함을 느낀다.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끼리 영역싸움을 너무 하는 거 같아요~ 큰일이네요.”

## 7화

다음 날 아침, 유현과 아라는 학교를 가지 않고 미미를 찾아다닌다. 미미도 보이지 않는다. 다른 길고양이들을 볼 때마다 말을 걸어보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때, 아라는 마아 꾸우를 보여주자며 제안하고 한 고양이에게 마아 꾸우를 적어 보여 주니, 어딘가로 데려간다.

아라와 유현은 고양이를 따라가고 유기견 보호소 앞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캣 맘을 만나게 된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냐고 하고, 아라는 미미라는 고양이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캣 맘은 보호소 뒷 편에 고양이 밥을 두기는 하는데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다. 아라와 유현이 보호소 뒷편으로 향한다.

## 8화

그곳에는 검은 고양이, 노란 고양이가 섞여 다른 고양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게 막고 있다. 미미는 아라와 유현을 발견하고 반복해서 ‘마아 꾸우’를 외친다.

유현은 그 밥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려 한다. 그때, 캣 맘이 등장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묻고 유현은 아라의 손을 잡고 무작정 뛰기 시작한다. 캣 맘이 유현을 잡으려 하자, 미미의 지시에 따라 고양이들이 캣 맘에게 달려든다. ‘이 쓸데없

는 고양이들이!’ 유현은 동물 병원에 도착하고, 이 밥에 이상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수의사는 아이들을 수상하게 쳐다본다. 유현은 며칠 동안 죽은 고양이들이 이 밥을 먹은 것 같다며 부탁한다. 수의사는 검사에는 며칠이 걸린다며 아이들을 돌려보낸다.

캣맘은 고양이들에게 한참 당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잔뜩 들고 길로 나온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길로 향한다.

## 9화

고양이들은 캣맘이 온갖 곳에 뿌려둔 밥 앞에 모두 마야 꾸우를 적어 놓는다. 그뿐만 아니라 온 길에 고양이들이 발톱으로 마야 꾸우를 적어둔다. 그러나 이는 고양이들이 심각한 도시 파괴를 하는 것처럼 인식된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보면서 혐오스럽다고 말하고, 고양이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한다.

며칠 뒤, 아라의 초등학교에 경찰관이 찾아오는데….

## 10화

동물병원에 밥을 가져간 학생을 찾는다는 말에 아라는 번쩍 손을 든다. 아라와 유현은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고, 캣맘이 체포된다. 수의사는 아이들에게 고양이 밥에 엄청난 독이 들어있었다며,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한다.

다음 날, 뉴스에 고양이들을 구한 아이들과 고양이를 해치려 한 위선적인 캣맘의 소식이 보도 된다. 유현은 인터뷰에서 고양이들이 살기 위해 말하고, 글을 적은 것이라며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한다. 캣맘은 유기견들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작한 범행이라고 밝힌다.

## 11화

한글 쓰는 고양이는 외국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된다. 미미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으며 도시에서 행복하게 지낸다. 아라는 어려웠던 한글 공부에 흥미를 가지며 받아쓰기 100점을 받고, 유현은 경찰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다.